

<http://doi.org/10.5253/kpac.2025.52.3>

高峯 奇大升의 自然詩 研究

- 自然과 道의 合一을 향한 詩的 摸索

김진욱*

차 례

1. 序論
2. 高峯 自然詩의 思想的 背景
 - 1) 高峯의 自然觀
 - 2) 自然에 대한 美意識
3. 高峯 自然詩의 表現 特性
 - 1) 自然의 形象化 方式
 - 2) 詩的 言語와 이미지
4. 結論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조선 중후기 도학자이자 시인인 고봉 기대승의 자연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 사상적 배경, 자연에 대한 미의식, 그리고 표현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고봉은 퇴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대표적 주리론자로서, 시문학 역시 단순한 감흥의 발현이 아닌 심성 수양과 도덕적 실천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자연시는 감각적 아름다움의 묘사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을 통한 도의 체득과 인간 내면의 성찰을 핵심 지향으로 삼는다.

논문은 먼저 고봉 자연시의 자연관을 고찰하며, 자연이 단지 외적 풍경이 아니라 도덕적 자각과 자기 완성을 위한 철학적 거울로 기능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자연 속 만물에 '이'가

* 조선대학교 교수.

내재해 있다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연을 통하여 인격 수양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매화, 대나무, 고산수와 같은 자연 사물은 그의 시 속에서 절개, 겸허함, 고결함 등 도학적 가치와 연결되어 상징적으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고봉의 시에 나타난 자연에 대한 미의식을 분석하였다. 그는 절제된 표현과 담백한 시어 속에 섬세한 감정을 응축시켜, 유가적 '중용'과 '청정'의 미학을 시적으로 구현하였다. 특히 고봉의 자연은 단지 외양의 재현이 아니라, 시인의 내면 감정과 도학적 사유를 투영하는 매개체로 작동한다. 그의 시는 정적이고 고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독자에게는 자연 속에 깃든 도덕적 울림과 정서적 평온함을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고봉 자연시의 표현 특성을 구체적 시 구절과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는 자연의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 과장된 수사를 배제하고, 간결하고 절도 있는 언어를 활용하였다. 자연 이미지들은 그의 내면 풍경과 긴밀히 연결되며, 자연과 인간, 자연과 문학이 하나의 유기적 세계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고봉은 철학과 시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하였으며, 자연시는 그의 문학적·사상적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르로 자리매김한다.

핵심어 : 고봉 기대승, 자연시, 성리학, 도학적 자연관, 유가적 미의식.

1. 序論

고봉(高峯; 1527~1572)은 중종 22년에 태어나 명종과 인조를 거쳐 선조 5년, 향년 46세로 생을 마감하였다. 비교적 짧은 생애 동안 그는 총 766수의 漢詩를 남겼는데, 이는 동시대 대표 시인들과 비교하더라도 방대한 양이다. 천재 시인으로 평가받는 송강 정철은 573수¹⁾, 삼당시인 중 한 명인 고죽 최경창은 238수의 작품을 남겼다. 이와 비교할 때 고봉의 시편 수는 그 규모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고봉은 시인으로서의 위상을 높게 평가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1) 한시 작가가 남긴 작품 수를 정확히 규정하는 일은 어렵다. 송강은 760여 수의 한시를 남겼다는 것이 정설이나 『松江集(성주본)』에 수록된 작품은 573수이다.

가 활동하던 시기는 호남 사림 문학이 융성하던 16세기로, ‘穆陵盛世’로 불리는 문예적 전성기였다. 이처럼 문단의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적 배경은 고봉 문학의 상대적 저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고봉의 시문학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활발한 학문적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이병기는 고봉의 작시 기법과 도학 자로서의 시 창작 원리를 고찰하였고,²⁾ 김성기는 그의 시에 내재된 미의식과 정서를 분석하였다.³⁾ 허경진은 퇴계와 고봉이 주고받은 매화시를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⁴⁾ 조정림은 2004년 고봉 시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시 정신을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정림 이후 고봉에 대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봉의 시문학에 대한 동시대 인물들의 평가를 보면 『高峯集』의 서문을 쓴 장유는 “문장을 다듬고 꾸미지 않았음에도 기운이 생동하고 글 솜씨가 노련하여 일가를 이루었다”⁶⁾고 찬양하였다. 장현광 역시 고봉의 문장을 “정미한 의리에서 비롯된 천성적 경지”⁷⁾라고 평가하며, 그 문학적 본질을 깊이 인정하였다.

고봉 시문학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연시에 나타난 뛰어난 성취이다. 그의 자연시는 성리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감성적인 울림을 지니고 있어, 주리론적 심성과 시적 정서가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미학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시적 경향은 고봉의 타고난 성정과 수양된 심미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봉의 시문학 가운데 자연시에 주목하여, 그 사상적 배경과 표현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고봉 시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2) 이병기, “奇大升의 弔挽詩에 대하여”, 『전통과 현실』 7, 고봉학술원, 1996, 123-155.

3) 김성기, “고봉의 贈詩 연구”, 『전통과 현실』 10, 고봉학술원, 1999, 175-205.

4) 허경진, “퇴계와 고봉이 주고받은 매화시에 대하여”, 『전통과 현실』 10, 고봉학술원, 1999, 207-236.

5) 조정림, “고봉 기대승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4.

6) 奇大升, 『高峯集』, <高峯集序>.

7) 奇大升, 『高峯集』, <高峯集序>.

2. 高峯 自然詩의 思想的 背景

고봉의 자연시는 단순한 景物의 묘사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연 속에서 감각적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를 노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 道의 세계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였다. 고봉의 자연시는 표면적으로는 산수와 초목, 계절의 흐름 등을 읊조리는 듯하지만, 그 심층에는 인간의 내면을 수양하고 우주 만물의 이치를 통찰하려는 철학적 사유가 깃들여 있다.

특히 고봉은 퇴계 이황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성리학적 세계관을 철저히 내면화한 도학자였다. 퇴계와의 서신 왕래를 비롯해, 매화를 주제로 주고받은 시편에서도 알 수 있듯, 고봉은 시를 감정의 발산보다는 도덕적 수양과 자아 성찰의 도구로 삼았다. 이는 곧 시문학에 대한 그의 인식이 단순한 취미나 유희적 차원을 넘어, 인간 완성과 도의 실현을 위한 실천 행위였음을 보여준다. 고봉의 자연시는 시인의 내면적 지향과 철학적 태도, 그리고 고유한 미적 감수성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

고봉의 자연시는 예민하고 섬세한 감각으로 포착된 자연의 정취를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함으로써, 도학자의 엄정한 정신과 시인의 감성적 직관이 절묘한 균형을 이룬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의 체험에서 비롯된 정서는 곧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며, 자연과 자아, 우주와 인간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유가적 사유를 시적으로 구현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고봉의 자연시에 내재한 사상적 기반을 두 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자연에 대한 고봉의 철학적 인식, 즉 도학자이자, 시인으로서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자연을 대하는 고봉의 심미적 시선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는 자연의미를 어떻게 감지하고, 어떤 언어적 방식으로 이를 형상화하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고봉 자연시의 정서적 깊이와 미학적 특성을 논의하겠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고봉 자연시의 사상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그의 시문학이 단순한 자연 찬미를 넘어 철학적 사유와 심미적 직관이 어우러진 고유한 경지를 형성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高峯의 自然觀

(1) 도학자로서의 자연 인식

고봉의 자연관은 단순히 자연을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묘사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의 자연 인식은 철저하게 성리학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으며, 이는 고봉의 시세계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고봉은 이러한 도학적 사고방식을 깊이 수용한 인물로, 자연을 단지 아름다운 대상으로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道'를 체득하고 자신의 심성을 수련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이는 고봉이 시를 통해 산수와 초목, 자연의 흐름을 묘사하면서도 항상 일정한 윤리적·도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고봉은 이러한 도학적 자연 인식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 절제된 언어와 차분한 정서를 바탕으로 삼는다. 그는 자연을 과도하게 미화하거나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고 진중한 어조로 자연의 이치를 읊는다. 이를 통해 고봉은 자연과 자아, 인간과 우주의 관계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시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의 시세계는 자연의 이미지 속에서 도를 체득하고자 하는 도학자의 자세와, 시적 감수성을 통해 그것을 언어화하려는 시인의 자질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庭前小草挾風薰 뜰 앞에 작은 풀 훈풍을 만났으니
 殘夢初醒午酒醺 쇠잔한 꿈 깨자 낮술에 취하였네
 深院落花春晝永 깊은 정원에 꽃 지고 봄날은 긴데
 隔簾蜂蝶晚紛紛 발 밖에 벌과 나비 늦도록 분분하네

<偶題>⁸⁾

8) 奇大升, 『高峯集』, 卷之一, <偶題>.

이 작품에 대하여 홍만중은 “아! 이들 여러 현인들의 시는 말을 지음에 天然스럽고, 각기 妙處를 다하여 그 性情의 바름을 詩에서 얻은 분들을 이에서 가히 볼 수 있다.”⁹⁾라고 평했으며, 김병국은 “깊은 산 속의 집에서 고봉은 한가로이 봄날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中略- 고봉은 시를 吟咏하면서 性情의 바름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봉의 시관이 성리학적 효용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고봉도 文을 載道之器로 인식했었던 것이다.”¹⁰⁾라고 하였다.

이 작품은 한가로운 봄날의 정취를 꾸밈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아름다움을 획득하고 있다. 은유나 상징, 그리고 압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연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자연을 관조의 대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아무런 꾸밈이 없다는 것이 작품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어느 봄날 낮술에 취해 깜박 졸다 눈을 뜨자, 발 밖으로 어지러이 날고 있는 별과 나비가 한 폭의 산수화처럼 다가온 시흥을 읊은 것이다. 이 이상의 해석은 오히려 작품 읽기를 방해한다. 도학적 자연관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¹¹⁾

고봉의 시 작품에는 자연과의 일체화를 통해 자신의 심성을 반추하고, 도의 이치를 체득하려는 도학적 실천 태도가 깃들여 있다. 맑은 바람과 밝은 달¹²⁾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때 묻지 않은 순수성과 우주의 조화를 상징하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비추는 성찰의 매개체로 작용한다.

이렇듯 고봉의 자연 인식은 성리학의 철학적 체계 속에서 구축된 ‘수양의 장’으로서의 자연, 그리고 ‘도덕적 이상’을 구현하는 상징적 매체로서의 자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그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동시에 통합하려 하였다. 이러한 점은 고봉 시세계의 핵심적 특성이자, 도학자로서의 그의 정체성이 시문학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9) 洪萬宗, 『詩評補遺 下』, 噫此等諸賢之詩, 作語天然 各盡妙處 其性情之正得於詩者, 於此可見矣.

10) 김병국, “고봉 기대승의 문학 연구”, 『泮橋語文研究』 30집, 반교어문학회, 2011, 69.

11) 김진욱, “고봉시의 봄 의미 연구”, 『문화와 융합』 45권 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20.

12) 김진욱, “고봉 시의 문학적 특성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5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91-111. 參照. ‘淸風’과 ‘明月’은 고봉이 즐겨 쓴 시어이다.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 할 수 있다.

(2) 자연과 道의 통합적 인식

고봉의 자연관은 ‘자연 곧 도’라는 시각이다. 그는 자연과 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자연을 단순한 감상이나 시적 배경으로 삼지 않았다. 고봉에게 있어 자연은 그 자체로 도덕적 진리와 우주적 질서의 구현체였으며, 인간이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고, 내면의 수양을 실현할 수 있는 장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고봉의 철학적 기반에서 기인한다. 인간은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앎의 확장이 아니라 도덕적 존재로서의 완성을 향한 실천적 여정이다. 고봉은 이러한 사유를 자신의 시 속에 녹여내며, 자연을 통해 道의 진리를 직관하고자 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이 도를 매개로 한 일체의 존재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기서 자연은 정서를 일으키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심성의 수련과 존재의 근원을 깨닫게 하는 도학적 공간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고봉은 자연물 하나하나에 도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부터 존재의 진리를 추구하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사유체계를 시적 언어로 구현하였다.

故山春雨後	고향에 봄비가 내리니
花發蕨芽肥	꽃 좋고 고사리도 살지구나
謾欲尋芳去	부질없이 명예를 쫓아 떠났다
應須詠月歸	달빛만 읊으면서 돌아오네
松醪滿盞嫩	송료는동이 가득 익어 가고
石菜着根緋	돌나물은 뿌리 내려 향기롭네
醉臥風生耳	취해 눕자 바람이 귓가에 나니
陶然忘世機	도연히 세상 일을 잊어버리노라

<漫興>13)

고봉의 <漫興>은 많은 연구자가 논의한 작품으로 박명희는 “봄비가 내린 뒤의 풍광을 묘사하던 중에 술에 취해 세상의 근심을 잊는 모습을 그렸다.”¹⁴⁾고 하였으며, 권미화는 “청정한 고향 산의 풍경은 시인으로 하여금 마음속에 감흥이 저절로 차오르게 하고 시인은 달빛에 젖어 시로써 그 감흥을 읊고 있다. 그 풍경과 감흥이 참되어 시에는 자연의 旨趣가 그대로 깃들여있다.”¹⁵⁾고 하였다. 김병국은 <漫興> 두 번째 수에 대하여 “자연의 경물인 풀과 꽃과 나무에 물이 올라 화사함과 싱그러움을 더하니, 마음속에 흥취가 도도히 오르는 것이다.”¹⁶⁾라고 논하였다.

고봉의 이러한 시적 인식은 인간과 자연,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시선으로 요약된다. 그는 문학을 감정의 분출 수단이 아닌, 도덕적 완성과 인격 수양을 위한 수행의 수단으로 여겼고, 자연은 그 수행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현상이었다. 고봉에게 있어 ‘도’는 인간이 외부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의 이치를 깨달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실현하는 것이었다. 즉 자연은 감상 대상인 동시에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문학은 그 깨달음을 형상화하는 수련의 한 형태였다.

이러한 고봉의 통합적 자연 인식은 도학자적 자기 규율과 시인의 감성 사이의 간극을 뛰어넘게 한다. 그는 도학자의 이성과 시인의 정서를 통합하여, 자연 속에서 도를 보고, 도를 통해 자연을 읽는 이중적 시선을 구현했다. 이러한 시선은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그의 삶과 학문, 그리고 시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적 기반이기도 하다. 그는 자연을 인간과 대립하거나 분리된 존

13)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漫興>. 여기서 소개한 작품은 <漫興> 3수 중 첫 수이다. 나머지 두 수는 다음과 같다. 閉門終夜雨 野水綠生漪 土潤耕初利 風暄草漸萎 小柳絲入莧 細柳翠添絲 爲報幽棲友 須應把酒卮(2수). 清晨起對書 瀟洒志堪舒 細細梅花落 霏霏雨點踈 拈毫歌樂只 飲水沃焚如 自喜幽棲僻 松篁擁小廬(3수)

14) 박명희, “고봉 奇大升 시에 나타난 興感의 미학적 특질”, 『호남문화연구』 54집, 호남문화연구소, 2013, 198.

15) 권미화, “고봉 기대승 한시의 산수전원 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 6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9, 211.

16) 김병국, “고봉 기대승의 문학 연구”, 『泮橋語文研究』 30집, 반교어문학회, 2011, 69.

재로 보지 않고, 인간과 동일한 ‘리’의 구현물로 보았으며, 이로써 인간과 자연, 도와 시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는 세계관을 견지했다.

고봉은 자연과 도, 인간과 자연, 시와 철학 사이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허물며, 자연을 통해 도를 깨닫고, 도를 통해 자연을 새롭게 조망하는 사유 방식을 시 속에 구현했다. 그의 자연시는 철저한 성리학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시적 사유의 결정체로서, 조선 유학 문학의 고유한 정신적 지향성과 깊이 있는 미학을 동시에 담아내는 중요한 문학적 성취라 할 수 있다.

2) 自然에 대한 美意識

고봉의 자연시는 성리학적 도학 사유에 기초하면서도, 동시에 섬세하고 조화로운 미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단순한 도학자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 감정을 정제하고, 내면을 투영한 시적 주체로서의 자의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특히 고봉은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해 감성과 절제, 교감과 자정, 정적 고아미의 구현이라는 복합적 미학을 형성하였다. 이 장에서는 고봉 시문학의 중요한 미적 특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1) 감성과 절제의 공존

고봉의 자연시는 단순한 철학적 설화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의 시에는 감성적 울림과 절제된 형식미가 절묘하게 공존한다. 이는 고봉이 시를 도의 수단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정서의 발로와 형식의 절제를 동시에 구현해낸 시인이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고봉은 감정의 진폭을 숨기지 않되, 이를 절도 있게 형상화함으로써 유가적 문학 정신을 시로 구현하였다.

그의 시어는 전반적으로 담백하고 간결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결코 무감각하지 않다. 예를 들어, 고봉은 자연을 묘사할 때도 장식적 표현을 피하고, 단순한 어휘로 그 안에 담긴 청정함과 정결함을 통해 도덕적 성찰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는 단순한 자연 감상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객관화시키는 유가적 시정신의 구현이다.

物色含春意	만물의 빛깔 봄 뜻을 머금어
昭蘇眼忽開	밝고 고와 눈이 활짝 열린다
日華初泛柳	햇별은 버들가지에 먼저 나타나고
風氣欲舒梅	바람은 매화꽃 피게 하려 한다
麗景催吟筆	고운 날은 읊는 붓을 재촉하고
殘年急把盃	늙은이는 급히 술잔을 잡누나
料君先領略	이 경치 그대가 먼저 알 것이니
須寄好詩來	좋은 시를 부쳐 보내도록 하오

<微雨不覺夜來 春候亦已至矣 殘年幽感 誰與共晤 獨坐呻吟之餘 偶然得之 不復
了了也 君以爲何如 明彥白直夫年兄>¹⁷⁾

이 작품은 “가랑비가 밤사이 내린 줄도 몰랐는데 봄이 또한 이미 이르렀다. 늘그막의 그윽한 감회를 누구에게 말하겠는가. 홀로 앉아 신음하던 나머지 우연히 얻었다.”¹⁸⁾라는 시제에서 보이듯 봄이 온 것에 대한 감흥을 시화하고 있다. 고봉에게 봄은 특별한 계절이다.¹⁹⁾ 고봉은 이 작품에서 기다리던 봄에 대한 감성을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 전 4구를 통하여 봄의 정취를 절제하여 노래하고, 후 4구에서 그 절제된 감성을 내재화하고 있다. 시제에서 보이듯 이 봄에 대한 감흥을 ‘누구에게 말하겠는가.’라는 표현으로 압축하고 있다.

이처럼 고봉은 시에서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개인적 감정을 과장하거나 노출하기보다는, 자연의 장면 속에 그것을 스며들게 하고, 함축적으로 암시한다. 이는 유학자들이 추구한 ‘思無邪’의 문학 이상과 연결되며, ‘과하지 않되 감동을 주는 詩作’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고봉의 시는 읽는 이로 하여금 절제 속의 감성, 담백함 속의 깊이를 음미하게 한다.

17)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微雨不覺夜來 春候亦已至矣 殘年幽感 誰與共晤 獨坐呻吟之餘 偶然得之 不復了了也 君以爲何如 明彥白直夫年兄>.

18)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微雨不覺夜來 春候亦已至矣 殘年幽感 誰與共晤 獨坐呻吟之餘 偶然得之

19) 김진옥, “고봉시의 봄 의미 연구”, 『문화와 융합』 45권 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20.

(2) 자연과의 교감에서 오는 심미의식

고봉은 자연을 단지 ‘관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정신적 소통의 주체이자, 심미적 감응의 동반자였다. 그는 자연 속에서 인간과 우주의 질서를 깨닫고자 하였으며, 그 감응 과정에서 비롯된 미적 체험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자연과의 교감은 고봉에게 있어 자아를 비우고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경험이었다. 그가 묘사하는 바람, 달, 구름, 연꽃, 매화 등의 자연물은 그저 형상을 그리는 대상이 아니라, 정서적 자아가 스며드는 존재들이다. 그는 이러한 자연물들과 심리적 교감을 맺고, 그것을 통해 번뇌를 씻고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을 시로 남겼다.

幾年收視臥幽岑	몇 해나 수양하며 깊은 산 속에 살았나
餅鉢蕭然只此心	바리때 쓸쓸해도 이 마음뿐이랴오
明月滿樓清夜永	맑은 밤 누대 가득 달빛이 흐르고
白雲埋谷暮天深	저물녘 골에 잠긴 흰 구름은 깊어라
訪古惠師聊寓跡	옛것 찾는 혜사는 애오라지 자취를 붙였는데
題詩癩可孰知音	시를 쓴 나가는 그 누가 알아주나
自慚懶拙囚塵白	게으름뱅이 풍진에 문힘 스스로 부끄러워
回首青山謾獨吟	청산을 돌아보며 부질없이 읊노라

<贈雙溪僧性默>²⁰⁾

이처럼 고봉이 즐겨 읊은 ‘달’은 단순한 조망 대상이 아니라, 고요함과 청정함을 매개로 인간의 심성과 교감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맑은 밤 누대 가득 달빛이 흐르고, 저물녘 골에 잠긴 흰 구름은 깊어라’라는 표현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려는 수행적 감응을 시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러한 감응적 미의식은 단순한 감상의 차원을 넘어선다. 고봉은 자연 속에

20) 奇大升, 『高峯集』, 卷之一, <贈雙溪僧性默>. 고봉의 <贈雙溪僧性默>은 칠언율시 두 수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소개한 작품이 첫 수이고, 나머지 한 수는 다음과 같다. 雲間隱約秀孤岑 正對幽人不染心 泉噴雪花松徑濕 日烘嵐氣石堂深 寒灰撥火香生簾 靜夜持珠磬發音 宴坐百年拚到岸 瀾翻千偈試長吟.

서 도덕적 이상과 정서적 해방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심미적 긴장과 이완을 시의 구조 속에 정교하게 배치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시는 내면의 수양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동시에 공명하는 다층적 미학 공간을 창출하게 되었다.

(3) 靜的 아름다움과 고아한 정취

고봉의 시 세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미학적 특질은 정적이고 고아한 아름다움의 추구이다. 그는 외향적이고 화려한 수사를 지양하고, 절제된 언어와 침묵의 미학을 통해 자연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유가의 ‘中庸之道’, 즉 지나치지 않음의 미학과 직결된다.

고봉 시에 나타나는 ‘靜’의 미학은 단지 소란을 피해 고요함을 즐긴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의 동요를 멈추고 본연의 자아와 마주하는 존재론적 상태를 표현한다. 그는 흔히 ‘고요한 산속’이나, ‘적막한 강변’과 같은 배경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無心の 상태로 자연을 응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동양 전통 미학에서 중시하는 ‘淸淨’의 정신과 연결되며, 문자의 침묵 속에서 울리는 정서의 여운을 만들어낸다.

愁外水流花謝	근심이 없으니 흐르는 물, 지는 꽃이 보이고
意中雲白山靑	마음속엔 흰 구름 푸른 산 가득하네
蹇驢破帽西去	발 저는 나귀 해진 모자 서쪽으로 가니
無限長亭短亭	장정에 단정에 그 길은 끝이 없네

堤下荷花亂發	제방 밑에 연꽃 흐드러지게 피었고
堤上榆柳交陰	제방 위엔 느릅나무 버드나무 무성 하구나
一雙白鷺竝坐	한 쌍의 백로가 나란히 앉았으니
爲問渠有何心	문노라 너는 무슨 마음 지녔고

<途中謾成 八首>²¹⁾

21)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위의 작품은 <途中謾成 八首> 중 첫 번째와 네 번째 작품이다. 고봉은 세상을 愁로 보았다. 이 근심 밖으로 벗어나니 자연이 보이는 것이다. 물이 흐르는 것이 보이고, 꽃이 지는 것이 보인다. 물은 흐르는 것이, 꽃은 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고봉의 눈 앞에 펼쳐진 풍광과 본인의 의중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제방 아래 흐드러지게 핀 연꽃, 제방 위의 버드나무, 한 쌍의 백로 모두 고봉의 눈 앞에 펼쳐진 풍광이다. 적어도 이 작품 속에서 연꽃은 어떠한 상징도 아닌, 그냥 연꽃이다.

고봉의 <途中謾成 八首>는 먼 길을 가는 도중에 그의 눈 앞에 펼쳐진 풍광을 담담한 필치로 그려낸 작품이다. 특별한 주제의식도 보이지 않고, 표현에 있어선 특별한 修飾도 없다. 하지만 거듭하여 읽을수록 작품의 첫 번째 시어인 ‘愁外’로 나아가게 한다. 독자는 작가의 시선을 따라 함께 자연 속을 거닐며 부질없는 근심을 내려놓는다.²²⁾

이처럼 고봉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고아함을 구현한다. 이는 단지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의 질서와 본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나 인위적 감정을 제거한 상태에서 자연과 무심히 대면함으로써 오히려 깊은 미적 감흥을 이끌어내는 데 능했다.

이러한 미학은 고봉이 시를 통해 지향한 도학적 성찰의 완성형이라 할 수 있다. 외부 세계의 아름다움을 섬세히 포착하되, 이를 내면적 정화와 도덕적 사색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은 그의 시를 단순한 서정시가 아닌 철학적 시의 경지로 이끌었다. 그리하여 고봉의 자연시는 정적이고 절제된 미감 속에서 심오한 인간학적 탐색을 전개하는 하나의 수행 문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봉의 자연시는 성리학적 주리론에 기반을 둔 철학적 사유와, 감성적이고 절제된 시적 미의식이 결합되어 형성된 독자적 시세계를 보여준다. 그는 자연을 단순한 경관으로 보지 않고, 도의 실현과 심성 수양의 장으로

22) 김진욱, “고봉 시의 문학적 특성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5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91-111.

인식하며, 그 안에서 존재와 세계, 자아를 성찰하였다. 동시에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응하고, 이를 간결한 언어로 형상화하는 섬세한 미적 감각을 지녔다. 이처럼 고봉의 자연시는 유가적 도학정신과 시인으로서의 심미적 감성이 절묘하게 융합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3. 高峯 自然詩의 表現 特性

고봉의 자연시는 도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시적 감각과 표현의 섬세함을 함께 지닌다. 그의 시는 자연을 도의 매개로 삼는 철학적 기반 위에서, 언어적 형상화와 시적 이미지를 통해 풍부한 정서를 드러낸다. 이 장에서는 고봉 자연시의 표현 양상 중 특히 자연을 형상화하는 방식과 시어 및 이미지의 사용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自然의 形象化 方式

고봉의 자연시는 자연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내재된 도덕적 가치와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형상화는 사실적 재현을 넘어, 자연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적 방식과 은유적 표현을 통해 구현된다.

우선, 고봉은 靜態的인 자연의 묘사를 통해 고요한 사색의 분위기를 창출한다. 그의 시 속 자연은 극적인 변화보다는 조용한 움직임과 섬세한 기운을 통해 표현되며, 이는 독자로 하여금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가능케 한다. 예컨대, ‘고요한 물가에 비친 달빛’이나 ‘잎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결’과 같은 묘사는 단순한 경물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시인의 내면을 반영하는 수양의 장면으로 읽힌다.

池塘春草晚萋萋	연못의 봄풀이 늦게야 우거지니
隱几閑吟日向西	기대앉아 한가로이 석양을 노래하네
風撼殘梅飄白雪	바람은 매화를 흔들어 눈꽃을 날리고
雨霽幽逕淨芳泥	비는 오솔길 향기로운 흙을 적시네
垂楊帶霧村村暗	안개 속의 수양버들 마을마다 자욱하고
好鳥迎時樹樹啼	때 맞춰 새들은 나무마다 우는구나
聞道新亭開勝槩	들었노라 새 정자에 경치도 좋다 하니
擬携藜杖步苔磯	청려장 끌고서 이끼 낀 길 걸으리라

<次李重之韻>²³⁾

고봉의 <次李重之韻>은 自然의 의경을 잘 드러낸 수작이다. 첫 2구는 謝靈運의 <登池上樓>란 시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정민은 이 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謝靈運은 <登池上樓>란 시에서 “연못에 봄풀이 돋아나오고, 정원버들 우는 새 바뀌었구나(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란 천고의 명구를 남겼다. 봄이 되니 봄풀이 돋아나고, 버들개지에 물오르니 꾀꼬리의 목청이 변한다. 마치 밥 먹으니 배부르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 이 무덤덤한 구절을 두고, 역대로 칭찬이 마르지 않았다. 송나라 葉夢得은 『石林詩話』에서 이 구절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이 기막힌 줄을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 대개 기이한 것만 가지고 구하려 들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교묘한 점은 바로 아무 의도 없이 느닷없이 경물과 서로 만나, 이를 빌어 글을 이루고, 갈고 다듬을 겨를조차 없었던 데 있다. 보통의 정으로는 능히 이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詩家의 묘처는 모름지기 이것을 가지고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괴롭게 끄끙대고 어려운 것만 말하는 자들은 대체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했다.²⁴⁾

고봉의 이 작품은 쇠구에 억지가 없고, 시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땀구가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다. 또한 시상이 억지가 없고, 시어들이 서로 조화를 이

23)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24) 정민,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2010.

루며, 흥이 최대한 절제되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2구에 와서 ‘聞道新亭開勝槩 擬携藜杖步苔磴’라고 情을 강조하여, 景과 균형을 맞추고 있다.²⁵⁾ 경물의 묘사를 통하여 시인의 內情을 표출하는 형상화 방식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참신하다. 고봉은 자연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다음 작품도 같은 맥락의 작품이다.

清晨開病眼	맑은 새벽에 병든 눈이 활짝 열리니
幾首穆如詩	맑은 바람 이는 듯한 몇 수 시로세
景色元挑興	경색은 원래 흥을 돋우는 것이라
情懷豈詫奇	정회는 어떻게 기이함을 자랑하리.

<癸亥 圓機再用詩字韻寄示 6번째 首, 前4句>²⁶⁾

또한 고봉은 사물에 의미를 투영하는 인식의 시적 전통의 표현 기법을 적극 활용한다. 매화, 대나무, 눈, 바람, 산과 달 등 자연물은 고봉의 시에서 정신적 의미를 부여받은 상징체로 등장하며, 이들 대상은 시인의 심경이나 도학적 이상을 담는 매개로 작용한다.

簷角寒梅亦自芳	처마 모퉁이 찬 매화 스스로 꽃다우니
夜深來繞意偏長	깊은 밤 와서 보매 의미심장하여라.
踈踈月照尊中影	밝은 달빛 비치니 자태가 술잔에 가득
細細風吹竹外香	미미한 바람 불자 향기는 대숲을 벗어나네.
破臘一枝那得見	섣달 다하니 한 가지를 어찌면 얻어 볼까나
殿春孤樹最堪傷	봄이 되면 외로운 나무 가장 애달프다.
西湖病骨詩難到	서호에 병골이라 시를 짓기도 어려우니
准擬明朝醉發狂	내일 아침 술에 취해 미쳐나 볼까.

<梅花數枝 開亦最晚 吟成長句 用破幽寂>²⁷⁾

25) 김진욱, “고봉 시의 문학적 특성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5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91-111.

26)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癸亥 圓機再用詩字韻寄示 6번째 首, 前4句>.

고봉의 <梅花數枝 開亦最晚 吟成長句 用破幽寂>는 칠언율시 두 수와 오언 율시 한 수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여기에서 소개한 첫수는 처마 밑에 핀 매화를 보고 그 자태의 아름다움과 향의 은은함을 시화하고 있다. 여기서 매화는 하나의 자연물이 아니라 그 자태나 향의 은은함, 모두 군자의 속성이다. 매화를 닮고자 하나 미치지 못함이 서호의 임포를 부르고 있다. 깊은 밤 술잔을 기울며 군자의 상징인 매화에 자신을 투영한 작품이다. 이러한 시심은 이어지는 작품에서도 계속되고 있다.²⁸⁾ <陶山雜詠> 18수도 동일한 맥락의 작품이다.

淤泥不染解全天	진흙탕에도 물들지 않아 天性을 保全할 줄 알고
濯濯明姿更可憐	깨끗하고 아름다운 姿態 또한 어여쁘네.
想得無言相對處	생각해 보니 말없이 서로 대하는 곳에
一團清興爲君偏	한 즐기 清雅한 興趣 그대에 치우쳤네.

<陶山雜詠 十八絶 5수>²⁹⁾

고봉의 詩作에 있어 자연 형상화 방식은 직관과 성찰이 교직된 도학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고봉은 시작을 할 때 사물에 대한 외형적 묘사보다 그 이면의 질서와 의미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도학자이자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지닌 고봉의 시세계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것이 고봉 자연시에 나타난 문예적 특성 중 하나이다.

고봉은 자연을 눈에 들어오는 그 자체로써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다. 고봉은 자연 속에서 그 풍광이 지닌 속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와 도덕적 가치와 인간의 내면에 투영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형상화하는 데 그의 시적 자질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그의 시작 형태는 작품 속에서 올

27)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梅花數枝 開亦最晚 吟成長句 用破幽寂>.

28)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梅花數枝 開亦最晚 吟成長句 用破幽寂>. 江城春晚雨霏霏 一樹殘梅映短籬 剩欲折來憐雪落 有時看去亂煙披 小窓對月隨晴影 幽逕傳杯接玉蕤 着子會應和鼎實 梢頭青蒂已離離(2수) 今年春最晚 三月梅花開 更值寒凝雪 仍愁落滿苔 酒醒香裏袂 夢斷影交盃 萬里思相贈 攀條首獨回(3수)

29)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陶山雜詠>.

곧이 구현되었다. 그러므로 고봉의 시적 형상화는 사실적 재현을 넘어, 자연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적 방식과 은유적 표현을 공유하고 있다.

2) 詩的 言語와 이미지

고봉 시의 언어는 간결하고 절제된 미학을 따르면서도,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는 퇴계의 시문학과 유사한 면모를 보이지만, 고봉은 보다 소박하고 투명한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연과의 감응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시어는 일반적으로 수사적 기교를 배제하고, 담백하면서도 정제된 표현을 지향한다. 비유나 상징은 과도하게 치장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언어 운용을 통해 대상과의 교감을 드러낸다. 일상어를 시어로 사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칫 고봉의 시는 너무 평이해 보이는 단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봉의 시는 읽을수록 그 담백함이 진솔한 시정으로 읽힌다. 이것이 고봉 시어의 특징이다.

春華到茅茨	꽃은 초가에 피었고
三峯住夕暉	산에는 석양 빛 머금었다.
秋天獨倚杖	가을날 홀로 지팡이 짚고 섰노라니
白露濕人衣	맑은 이슬이 옷깃을 적시누나.
古郡無城郭	옛 고을에는 성곽도 없고
山齋有樹林	산 서재에는 수풀만 우거졌네.
蕭條人吏散	쓸쓸히 관리들 흩어진 뒤에
隔水擣寒砧	차가운 다듬이 소리 물 건너에서 들려오네.

<晚望>³⁰⁾

고봉의 <晚望>은 오언율시이다. 오언의 간결함과 율시의 유장함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시적 감흥이 떨어진다. 간결함과 유장함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

30)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晚望>.

은 조금은 역설이다. 그래서 오언율시는 작시가 어렵다. 고봉의 수작 중의 하나인 <晚望>은 시제 그대로 저물녘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그대로 시화하였다. 작품 속의 꽃, 초가, 석양의 산, 배경인 가을, 성곽, 서재, 수풀 등은 모두 고봉의 눈에 들어오는 實在이다. 이러한 실재를 고봉은 담담한 언어로 작품화하고 있다. 고봉의 <晚望>은 어느 가을날 고봉 눈에 들어온 풍경의 서술로 보이지만, 읽을수록 맛이 있다. 일상적 언어를 시어로 사용하면서 그 시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탁월한 작품이다.

이처럼 이미지의 사용 면에서 고봉은 자연물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바탕으로 풍경을 시각화하는 데 뛰어난 감각을 보인다. 바람, 달, 안개, 물결 등 시각적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며, 이는 독자를 시적 분위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든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외면의 풍경을 넘어서, 내면의 정조를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風墮千山雪	은 세상 가득한 눈, 바람에 흩날리니
寒溪漲欲平	시내 물 불어나 평평해지네.
潮光凝不退	조수에 어리어 물러가지 않고
月色曉猶明	달빛은 새벽이 되어도 밝기만 하구나.
巖谷猿啼冷	바위 골짜기에 잔나비 쓸쓸히 울고
松梢鶴夢驚	소나무 가지 위의 학이 꿈에 놀라누나.
遙知灞橋上	과강 ³¹⁾ 의 다리 위를 어찌 알리오
詩興未應清	시흥이 아직은 맑지 못하구나.

<千山雪漲溪>³²⁾

고봉의 <千山雪漲溪>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들은 무심함 속에서 생동하는 고아한 아름다움을 구현한다. 자극적이거나 현란한 색채 대신, 은은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띠는 자연 이미지들이 중심을 이루며, 이는 고봉 시의 내면적 평

31) 중국 섬서성에 있는 강 이름.

32)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千山雪漲溪>.

정성과 미학적 고결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고봉의 <千山雪漲溪> 수련의 ‘風墮千山雪 寒溪漲欲平’은 훑날리는 눈발과 흐르는 강물을 시화하고 있다. 둘 다 동적인 이미지임에도 여기서는 정적으로 보인다. 온 세상이 눈 속에 파묻혔기에 달빛이 유달리 밝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千山雪漲溪>의 달 빛은 잔잔하다. 잔나비의 울음소리마저 조용하다. 꿈에 놀라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은 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고봉 자연시의 한 특성이다.

결과적으로 고봉의 시적 언어와 이미지는 유가적 절제미와 무위자연의 정신이 조화를 이룬 표현 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에 대한 내면적 교감과 시적 직관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야만 가능한 시 작법이다. 이것이 고봉 시의 표현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이 고봉은 평이한 시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자연의 내재된 이미지를 문학 작품으로 승화하였다. 이것이 고봉 시를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4. 結論

본 논문은 고봉 기대승의 자연시를 중심으로, 그의 자연관과 시정신, 그리고 표현 양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고봉의 자연시는 단순한 경물의 묘사나 감상적 서정에 머무르지 않고, 성리학적 도학 사유에 기반한 철학적 성찰과 인간 수양의 정신을 시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고봉은 자연 속에 내재한 ‘理’를 탐구하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심성을 수련하고 도덕적 이상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자연 인식은 자연을 단지 외부 세계로서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호응하며 도를 실현하는 수양의 매개체로 인식하는 철학적 태도와 연결된다.

또한 고봉의 자연시는 표현에 있어서도 유가적 절제미와 고아한 정취가 공

존한다. 감정은 절제된 언어로 응축되며, 화려하거나 과장된 수사를 피하고 조용하고 담담한 어조로 자연의 본질을 포착한다. 그의 시어는 간결하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유와 감성이 내재되어 있어 정적인 아름다움과 고결한 품격을 드러낸다. 이는 고봉이 도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시인으로서의 감수성을 조화롭게 융합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의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 자연과 道, 자연과 문학 사이의 인위적 경계를 허물고, 자연 자체를 도덕 실천의 場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통합적이고 유기적이다. 고봉에게 자연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구현하는 살아 있는 교과서였으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자 스승이었다. 그의 자연시가 인간과 세계, 윤리와 미학의 조화를 시도하는 장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고봉의 시에는 매화, 대나무, 산수, 바람, 달빛 등의 자연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그것들이 단순한 소재를 넘어선 도학적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 이미지는 절개, 겸허, 성찰, 청정함 등 유가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시를 통해 독자에게 도덕적 자각과 심미적 감흥을 동시에 전달한다.

고봉의 시문학, 특히 자연시가 보여주는 자연과 도, 시와 수양의 통합적 인식은 현대적 관점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사유의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고봉 시세계의 철학적 깊이와 미학적 섬세함은 오늘날에도 인간과 자연, 윤리와 예술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소중한 지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孔子, 『論語』 <雍也編>.

奇大升, 『高峰集』, 卷之一.

奇大升, 성백효, 이성우 譯, 『국역 고봉전서』,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7.

洪萬宗, 『詩評補遺』 下.

2. 논저

권미화, 「고봉 기대승 한시의 산수전원 의식 연구」, 『열상고전연구』 69집, 열상고전연구회, 2019.

김병국, 「고봉 기대승의 문학 연구」, 『泮橋語文研究』 30집, 반교어문학회, 2011.

김성기, 「고봉의 贈詩 연구」, 『전통과 현실』 10, 고봉학술원, 1999.

김진욱, 「고봉시의 봄 의미 연구」, 『문화와 융합』 45권 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_____, 「고봉 시의 문학적 특성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53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24.

박명희, 「高峯 奇大升 시에 나타난 興感의 미학적 특질」, 『호남문화연구』 54집, 호남문화연구소, 2013.

이병기, 「奇大升의 弔挽詩에 대하여」, 『전통과 현실』 7, 고봉학술원, 1996.

정민, 『한시미학산책』, 휴머니스트, 2010.

조정립, 「고봉 기대승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4.

허경진, 「퇴계와 고봉이 주고받은 매화시에 대하여」, 『전통과 현실』 10, 고봉학술원, 1999.

| Abstract |

A Study on the Nature Poetry of Gobong Gi Dae-seung

Kim, Jin-wook
Chosun Univ. Prof.

This paper presen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aesthetic consciousness, and stylistic features of the nature poetry of Gobong Gi Dae-seung (1527 - 1572), a prominent Neo-Confucian scholar and poet of the mid-Joseon period. As a leading proponent of juriron (the theory of the primacy of principle), influenced deeply by Toegye Yi Hwang, Gobong viewed poetry not merely as a medium of emotional expression, but as an extension of moral practice and self-cultivation. His nature poems go beyond simple descriptions of sensory beauty, aiming instead to facilitate an encounter with dao (道) and to foster introspection into the human condition.

The study first examines Gobong's conception of nature, revealing that he regarded it not merely as an external landscape but as a philosophical mirror for moral awakening and self-perfection. Grounded in the Neo-Confucian worldview that posits the universal presence of li (理, principle) in all things, Gobong interpreted nature as a vital site for ethical reflection. Natural elements such as plum blossoms, bamboo, and lofty

mountains are recurrent symbols in his poetry, embodying Neo-Confucian virtues like integrity, humility, and purity. These motifs reflect Gobong's continuity with Toegye's poetic tradition and offer insight into the philosophical depth of his poetic world.

The paper then analyzes Gobong's aesthetic sensibility as manifested in his poetic language. His works balance emotional delicacy with Confucian restraint, achieving a poetic embodiment of the Confucian ideals of moderation (*jungyong*) and purity (*cheongjeong*). Gobong's nature in Gobong's poetry functions not merely as an object of depiction but as a medium through which the poet's inner emotions and moral contemplation are expressed. His poems evoke a serene and refined atmosphere, conveying both ethical resonance and emotional tranquility to the reader.

Finally, the paper explores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Gobong's nature poetry through close readings of representative lines and poems. Eschewing ornate rhetoric, Gobong employed concise and measured language to capture the essence of nature. His poetic imagery is intimately connected to his inner landscape, illustrating the integration of nature, humanity, and literature into a cohesive, organic whole. Through this synthesis, Gobong created a poetic world that transcends the boundary between philosophy and poetics. Nature poetry, thus, stands as the most distinctive and revealing genre of his literary and intellectual identity.

Key words : Gobong Gi Dae-seung, nature poetry, Neo-Confucianism, Confucian aesthetics, gyeongmul jeosim, moral cultivation.

투고일 : 2025년 7월 9일 심사기간 : 8월 10일 - 8월 20일 게재확정일 : 8월 21일